

몇개월 쓰려고 데려왔나...박동원과 짧은 동행 끝

KIA 트레이드 득실 논란...박동원 LG행에 보호선수+보상금 받을 듯 LG 유강남은 롯데로...FA시장 남은 포수 양의지·박세혁 행선지 관심

박동원을 쫓던 KIA가 LG의 보호선수명단을 들여다보게 됐다. KBO 스토브리그 관심사였던 '포수' 포지션에 연세 이동이 발생했다. 21일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온 4명의 포수 가운데 2명의 거취가 결정됐다.

롯데가 LG의 '안방마님' 유강남(30)과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40억원, 연봉 총액 34억원, 옵션 6억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유강남을 떠나보낸 LG는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던 박동원(32)을 총액 65억원(계약금 20억

원, 연봉 총액 45억원)에 영입했다.

이번 FA 계약 발표로 KIA의 트레이드가 재조명되고 있다.

올 시즌 전부터 '박동원'은 뜨거운 이름이었다. "KIA가 박동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고, KIA는 결국 시즌 중 눈길 끄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IA는 지난 4월 키움에 내야수 김태진(27)과 현금 10억원,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박동원을 영입했다.

2라운드 지명권까지 할애하면서 FA를 앞둔 박

동원의 영입에 공을 들였던 만큼 KIA의 잔류에 무게가 실렸다.

박동원도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2023신인 환영식에서 "개성고 2라운드 포수 박동원입니다"라며 신인선수들과 자리를 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 만큼 흥분한 분위기에서 스토브리그가 전개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년계약을 위해 노력을 했던 KIA는 박동원 측의 침묵에 속을 태웠다. 이렇다 할 반응도, 의견도 없던 박동원 측은 FA 권리 행사에 앞서 'FA 신청' 소식을 전하면서 협상 테이블 기류가 급변했다. 그리고 KIA와의 동행은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원했던 '해피엔딩'이 아닌 만큼 트레이드 손익 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트레이드 최고의 수혜자는 박동원이 됐다. KIA에서 확실한 기회를 얻은 박동원은 FA 쇼케이스를 통해 '65억원 계약'에 성공했다.

KIA의 트레이드 상대였던 키움 입장에서 '성공작'이다. 10억과 미래를 얻었고, 김태진도 포스트 시즌에 뜨거운 활약을 하면서 키움을 웃게 했다.

KIA 입장에서는 박동원의 재역전포에 5강 싸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나름 위안삼을 수 있다. 하지만 박동원을 중심으로 김민식과 주효상의 트레이드가 이어진 만큼 '포수 트레이드'의 나비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다.

KIA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은 박동원의 영입팀이 LG라는 점이다.

박동원이 A등급인 만큼 KIA는 LG로부터 연봉 200%·보호 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LG가 탄탄한 선수층을 갖추고 있는 만큼 KIA는 전지를 선택할 전망이다. 박동원의 올 시즌 연봉은 3억 1000만원, KIA는 보상금 6억 2000만원과 LG의 21번째 선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보상선수에 따라서 박동원 트레이드 손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KIA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한편 이번 FA 시장에 나온 또 다른 포수 박세혁(32)과 '포수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35)의 행선지와 몸값도 스토브리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2월의 신부' 리디아 고 화려한 피날레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우승 올해의 선수·상금·평균타수 석권 한국 주요 부문 타이틀 '빈손'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7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리디아 고는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2위 리오나 메과이어(아일랜드)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여자 골프 대회 사상 최대 우승 상금인 200만 달러(약 26억8000만원)를 받은 리디아 고는 이번 시즌 LPGA 투어 상금(436만4403 달러),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또 한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CME 글로벌 레이스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2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 씨와 결혼하는 리디아 고는 2022 시즌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이정은이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올

렸다.

리디아 고는 이번 우승으로 2015년에 이어 7년 만에 개인 통산 두 번째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가 됐다. 평균 타수 역시 2021년과 올해 2연패를 달성했다.

10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한 달 만에 투어 통산 19승을 달성한 리디아 고는 올해에만 3승을 거뒀다. 리디아 고가 한 해에 3승을 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계속 선두를 달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둔 리디아 고는 우승 상금 200만 달러를 받아 이 대회 전까지 상금 1위였던 이민지(호주)를 제치고 상금 타이틀까지 독식했다. 리디아 고의 시즌 상금 436만4403 달러는 2007년 로레나 오조아(멕시코)의 436만4994달러 이후 15년 만에 나온 투어 통산 두 번째 단일 시즌 상금 400만 달러 돌파 기록이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 고진영, 4월 롯데 챔피언십 김효주, 5월 벅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 지은희, 6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전인지까지 네 명이 1승씩 거둔 가운데 2022시즌을 마무리했다.

전인지 이후 이번 대회까지 한국 선수들은 16개 대회 연속 우승하지 못했다. 상금과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신인왕, 최다승 등 주요 부문 타이틀 경쟁에서도 빈손으로 시즌을 마쳤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가 20일(현지시간) 열린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한 뒤 아내 신랑 정준씨와 함께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안세영 호주오픈 우승

한국 혼합복식 우승·준우승도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0)이 2022 호주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한국시간) 시드니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을 2-0(21-17 21-9)으로 꺾었다.

같은 날 열린 혼합복식 결승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맞붙으면서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챙겼다.

서승재(국군체육부대)-채유정(인천국제공항)이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산군청)을 2-0(21-9 21-17)으로 이겼다.

전날 열린 여자복식 4강전에서는 정나은(화산군청)-김혜정(삼성생명)이 태국의 베나파 아이문 사드-눈타카른 아이문 사드에 0-2(19-21 18-21)로 패해 3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거침없는 발차기 한국 태권도 '간판' 장준(22-한국체대)이 20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센트로 아쿠아티코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58kg급 결승에서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비토 델라칼라(이탈리아)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장준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전남 당구, 전국대회 금 2 수확

박용준 스누커·서서아 포켓볼 우승 김행직은 캐롬 3쿠션서 은메달

전남당구연맹 소속 선수들이 전국 당구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전남당구연맹(회장 조호석)은 "연맹 소속 선수들이 최근 강원도 동해시 동해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22 동트는 동해배 전국당구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용준은 스누커에서 지난 8월 고성군수배 전국 당구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박용준은 8강전에서 백민우(경북체육회)를 세트스코어 2-0으로 꺾은데 이어 준결승전에서 허세양(충남체육회)마저 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이근재(부산체육회)에 2-0, 셋아웃 승리를 거두고 스누커 최강자에 올랐다.

서서아는 포켓10볼 8강전에서 박은지(충남체육회)를 세트스코어 8-4, 4강 전서한소예(울산당구연맹)를 세트스코어 8-2로 따돌렸다. 서서아는 결승에서 최솔잎(부산당구연맹)을 세트스코어 8-7로 꺾고 지난 제103회 전국체전에 이어 잇따라 정상에 올랐다.

장문석은 남자부 포켓10볼 준결승에서 하민욱(부산당구연맹)에게 세트스코어 3-9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문석·서서아는 복식 준결승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국내랭킹1위' 김행직은 캐롬 3쿠션 남자일반부



박용준



서서아

에 참가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행직은 준결승에서 에버리지1.852, 하이런 8점을 기록하며 김형곤(서울당구연맹)을 50-27(27이닝)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조명우(실�크 드시엔티)에 50-40(24이닝)으로 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동감
2관	동감
3관	데시벨, 자백
4관	데시벨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6관	데시벨
9관	동감, 심야카페: 미생 허니
7관	씨네커뮤니티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자백
8관	씨네커뮤니티 풀: 600미터, 한산 리믹스, 킹덤 2: 아득한 대지로, 극장판 썬구: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 앞학교, 인생은 아름다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

즐거움
문화산책